

#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皇朝一統輿地全圖)」를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의 북방영토\*

정인철\*\*

## Northern Territory in late Joseon Period Through Old Western Maps and 「Huang Chao Yi Tong Yu Di Quan Tu」\*

In-Chul Jung\*\*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를 통해 조선의 북방영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조청경계의 유형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18세기에 제작된 서양고지도의 경우는 간도와 같이 확실한 정치적 통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의 경계 표시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취약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황조일통여지전도는 1885년의 감계회담에서는 청나라에 의해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는 근거자료로 사용되었지만, 1887년 회담에서는 이중하에 의해 두만강 발원지가 홍토수라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홍토수가 북한과 중국과의 경계선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고지도를 북방영토의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주요어 : 북방영토, 서양고지도, 조청경계, 황조일통여지전도, 영유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of Northern Territory in late Joseon Period through Old Western Maps and Huang chao yi tong yu di quan tu. Firstly, the types of borderline between Joseon and China represented in Old western maps were analysed. Throughout the eighteenth century, maps remained inaccurate with regards to actual political control in regions of Gando. So these maps have serious problems for use in territory sovereignty claim. Secondly, Huang chao yi tong yu di quan tu was used by China for the Tomun and Duman to be same river in 1885 Border meetings. But it was used by Lee Jung-Ha for the argument that the source of Dumangang was Hongtosu in 1887 meetings. Now Hongtosu is the border lin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conclusion, the old map should be objectively and thoroughly investigated to be used for the claiming of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northern territory.

Key Words : Northern territory, Old western maps, Joseon-China borderline, Huang Chao Yi Tong Yu Di Quan Tu, Territorial sovereignty

### I. 서론

독도와 간도 지역이 표시된 고지도는 독도와 간도의 영유

권과 관련되어 언론에 소개되곤 한다. 이 가운데,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고지도 연구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조선의 북방영토로 지칭되는 간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0297).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cjung@pusan.ac.kr)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상태, 2009; 이법관 등, 2010). 심지어 북방영토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북방영토'라는 용어는 간도나 만주로 불리는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고토나 찾아야 할 땅으로 막연히 불리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조병현(2010)은 북방영토를 '지리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 북방에 위치한 일정 지역으로서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고유 영토'라고 정의했지만, 정확한 지리적 범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sup>1)</sup>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1909년 일본과 청나라 간의 간도협약에 의해 중국에 편입된 북간도로도 불리는 동간도 지역<sup>2)</sup>을 북방영토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1909년에 일본과 중국 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은 상태이다(장영숙, 2013). 그렇지만 일부 학자들과 언론인, 그리고 민간단체는 간도 영유권 주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 역시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이다. 간도 영유권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백두산정계비 문제, 1885년과 1887년의 감계회담, 간도협약의 효력, 유조변의 형성, 간도와 관련한 영토교육, 동북공정, 간도 관리방안, 고지도에 표시된 조청경계 등의 주제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지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존재하거나, 일부 근거가 부족하여 실제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연구가 존재한다.

고지도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고지도 그리고 서양에서 발행된 고지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양보경(1996)은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북방영토 인식을 국가의 북방지역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조청경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김기혁(2006) 역시 고지도에 나타난 북방경계의 인식을 고찰했으나, 경계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문상명·양보경(2013)은 한국 고지도 속 백두산 북동류 하천에 나타나는 북방영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선 전기의 확대된 영토인식과 조선후기에 대두된 고토회복에 대한 강령의식이 표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 고지도 속의 조청경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박선영(2004)은 나홍선의 「조선도」, 「고금형승지도」, 그리고 송교인의 「간도도」 등의 조청경계를 소개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지도를 소개했으며, 국경선에 대한 구

체적인 언급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후 박선영(2007)은 1918년 인쇄된 중화민국 참모본부 제도국에서 편찬한 지도에 서간도와 동간도 지명이 표기된 것을 근거로 간도문제가 날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며, 서간도의 위치가 압록강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간도의 지리적 범위를 지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남의현(2012)은 중국과 조선의 고지도를 통해 15~17세기의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의 변경지대를 조사해서, 명·청대의 국경선이 압록강으로 고정된 것은 아님은 확인하였다. 그러나 17세기까지의 지도로 연구를 한정하였으므로 감계회담이 일어난 시점인 19세기 말의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인식에는 직접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엄찬호(2011)는 고지도를 통해 한중일의 국경변화를 연구했으나, 몇몇 고지도 도록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엄찬호(2012)는 이전의 연구를 보다 상세화하여 고지도 상의 조중간의 경계선 변화를 연구했으나, 또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팔도총도」, 「요계관방지도」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였다.

서양고지도에 표시된 조청경계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이나 조선지도 어디에도 조청경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여전람도」를 저본으로 한 지도가 제삼국인에 의해 제작되었고, 또 경계선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료로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돈수(2004)와 이재은·양보경(2011)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가 북방영토 인식에 대한 학문적 측면이 아닌 영유권 주장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서양고지도 연구들은 막연히 만주나 간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주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의 경계선 표현에 대한 연구 역시 아전인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선을 획정하기 위한 감계회담은 1885년과 1887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당시 두 나라 모두 근거 자료로 활용한 지도가 청나라에서 제작한 「황조일통여지전도」이다. 그런데 선행연구 어디에서도 이 지도의 이름만 언급하였지 지도 이미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감계회담 당시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지도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조청경계를 분석한 이화자(2011)의 저서에서도 이중하가 분명히 「황조일통여지전도」에 근거한다고 기술

했지만, 이중하가 「황조일통여지전도」의 축소본인 「황조여지략(皇朝輿地略)」을 보고 회답에 입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마도 「황조일통여지전도」의 원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양고지도와 「황조일통여지전도」를 활용하여 조선후기의 북방영토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기로 한다.

첫째,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자료가 18세기 서양고지도이다.<sup>3)</sup> 특히 당빌(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의 지도가 간도영유권 주장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당빌의 지도는 당시 서양에서 제작된 가장 정확한 중국지도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양고지도의 조청경계 형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 서양고지도에서 표시된 경계가 과연 당시의 조청경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당빌 지도의 저본이 된 「황여전람도」를 참조하여 당빌이 그린 국경선의 의미를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1719년의 「강희황여전람도」, 1722년의 「황여전람도」 목판본의 「조선도」와 1726년의 「웅정십배도」, 1761년의 「건륭십삼배도」 등을 참조하여 이후의 조청경계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가 되면 두만강과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 현재의 한중경계를 설정된 지도들이 등장한다. 그렇지만 압록강 이북지역과 송화강 상류, 압록강의 중국 쪽 지류인 혼강 일대 즉 동간도(또는 북간도) 지역을 대한제국의 영토로 묘사한 지도들이 등장했다. 여기서는 이 지도들의 등장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1712년 백두산정계비가 설치된 이후에는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을 둘러싼 특별한 분쟁은 없었다. 그러나 그 뒤 조선과 청나라의 백성들이 무인봉금지역에 들어가 개간을 하고 거주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85년의 을유감계회담과 1887년의 정해감계회담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이 두 회담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된 「황조일통여지전도」의 원본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였고, 이를 근거로 감계회담 당시에 백두산정계비 및 조청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고증하고 분석해야 8가지의 쟁점인 '고중번석 팔조' 가운데 두 가지인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냐의 여부'와 '소도문강과 대도문강의 비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당시의 감계상황은 당시 회담에 사용된 각종 공문서와 보고서, 개인 일기로 구성된 원문 자료인 이중하의 「감계사등록(勘界使騰錄)」의 이왕무 등(2008)의 역주판과 김형중(2014)의 역주판을 참조하여 파악했다.

## II. 서양고지도의 조청경계

우리나라 최초의 간도연구자라 말할 수 있는 김득황(1987)은 프랑스의 지도제작자 당빌의 지도를 간도 영유권의 방증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는 「황여전람도」를 모본으로 1725년 출간된 당빌의 「조선도(Royaume de Corée)」에 나타난 조청경계를 1710년 만주지역에서 「황여전람도」 제작을 위해 측량 사업을 주도한 레지(Jean Baptiste Régis)의 이름을 따서 레지선이라 명명하였다. 레지선은 동북쪽에서는 두만강 하구의 약 6킬로미터 동쪽 지점에서 시작되어 두만강 북쪽에서 산지 지역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어지다가 백두산을 가로질러 압록강 상류를 따라 가다 봉황성의 남쪽을 지나 압록강 하구의 서쪽으로 이르는 선이다(국토지리정보원, 2007). 이 유형은 조청경계가 압록강과 두만강의 지류를 따라 북쪽으로 약간 확장된 지도라 볼 수 있다(그림 1). 이 유형으로 국경을 표시한 지도로는 영국의 바붐(John David Barbut)의 1740년 「조선도(The Kingdom of Korea)」와 프랑스의 벨랭(Jacques-Nicolas Bellin)의 1750년 「중국지도(Carte du Katay ou Empire de Kin)」 등이 존재한다. 김득황은 레지선만 조청경계로 추정했지만, 이돈수(2004)는 당빌선과 본느선을 추가했다.

당빌선이란 당빌이 1732년 제작한 「중국령 타타르 지도(Carte Générale de la Tartarie Chinoise)」에 표시된 조청경계를 부르는 말이다. 이 지도에서는 평안도가 압록강 이북의 중국의 집안(集安)까지 확장되어 있고, 함경도 역시 두만강 이북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당빌선은 조청의 경계선이 레지선보다 서쪽 방향으로 확장되어 봉금지역을 포함해서 나타난 선으로 봉황성과 목책을 중심으로 국경을 표시하고 있다(그림 2). 1759년 영국의 김슨(John Gibson)이 제작한 「중국지도(A New & Accurate Map of the Empire of China)」와 프랑스의 헤리슨(Eustache Hérisson)이 1817년 제작한 「아시아지도(Carte générale de l'Asie)」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세 번째 유형은 본느선으로 프랑스의 지도제작자 본느(Rigobert Bonne)가 1771년 제작한 「중국령 타타르 지도(Carte de la Tartarie Chinoise)」에 표기된 조청경계를 지칭하는데, 이 지도는 당빌의 「중국령 타타르 지도」와 거의 유사하다. 그런데 이 지도에 그려진 경계선은 당빌선보다 더 넓은 지역을 조선의 북방영토로 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그림 3). 그래서 이돈수(2004)는 이 지도에서 요동과 심양을 포함하는 방대한 면적이 조선의 영역에 표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선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봉금지대 울타리를 표시한 유조변(柳條邊)이라는 의미의 'Barriere de Pieux'이



그림 1. 레지선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2. 당빌선

출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그림 3. 본느선

출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표기되어 있다. 또 선의 남쪽에 라요동(LEAOTON)이라고 표시했다. 결국 본느선은 국경선이 아니라 유조변이다.

이재은·양보경(2011)은 서양고지도의 조청경계를 보다 세분화해서 분석했다. 이들은 티메카코리아(Tmeccakorea)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17~19세기에 제작된 498종의 서양의 고지도에 한국과 중국의 경계 및 만주지역이 어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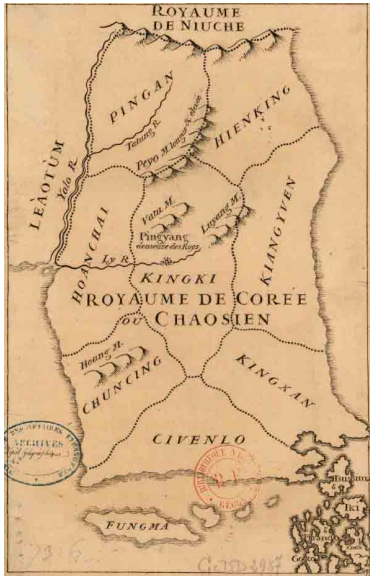
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고찰했다. 연구 결과 레지선, 당빌선, 그리고 본느선의 3가지 유형에 6가지 유형을 추가해 총 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추가된 6개의 유형은 1) 압록강·두만강 경계 유형, 2) 타듀(Tardieu)선 경계 유형, 3) 보웬(Bowen)선 경계 유형, 4) 티즈데일(Teesdale)선 경계 유형, 5) 봉금지역 표시 경계 유형, 6) 국경 표시가 없는 유형이다.

그런데 필자가 이들이 조사한 지도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 실제 지도의 내용과는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티즈데일(Teesdale) 선 경계는 서간도·동간도 지역을 일부 포함하며 북간도와 러시아의 연해주를 아우르는 북동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의 지도를 의미하는데, 이들이 근거로 사용한 지도인 티즈데일 출판사에서 간행한 도우어(John Nicaragua Dower)의 1844년 「아시아(Asia)」와 1844년 「중국과 일본지도(China and Japan)」에는 국경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보웬 유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유형의 경계선을 경계가 단순하나 북쪽으로 확장된 것으로 서간도와 동간도가 모두 조선의 경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정의했는데, 사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지도에서는 전혀 국경선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이들이 원본 지도를 열람하지 못하고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상의 지도를 참조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이다. 지도상에 표시된 어떤 사상의 형태 분류가 의미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되는 지도의 일반화 수준이 어느 정도 유사해야 한다. 소축척의 지도에서는 일반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심지어 압록강을 직선으로 그린 지도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도의 표시된 경계선의 형태만 고려하여 국경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레지선과 당빌선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조청경계선이 수록된 서양고지도는 대부분 황여전람도를 기본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정확성의 평가 기준은 「황여전람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냐는 것이다. 필자는 1719년의 「강희황여전람도」와 1726년의 「웅정십배도」, 1761년의 「건륭십삼배도」를 참조하였으나, 조청 국경선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단지 1722년의 「황여전람도」 목판본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가 한 「조선도」가 존재한다. 이 지도에서는 조청경계가 두만강과 압록강 분류를 따라 설정되어 있다(그림 4). 「황여전람도」 제작을 위한 만주 측량은 1710년에 이루어졌다. 백두산정계비에 의한 조청경계의 설정은 1712년에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황여전람도」 초판의 지도에서는 이 국경선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록 당빌의 이 두 지도(그림 1, 2)가 1725년과 1732년에 각각 출간되었지만, 당빌은 1722년의 목판본 「조선도」를 참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빌은 조청 국경선을 추정해서 그릴



**그림 4.** 황여전람도 1722년 목판본의 조선도  
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그림 5.** 당빌의 1729년 조선도  
출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 명확히 할 것은 레지선과 당빌선 모두 당빌이 그린 지도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지도는 이후 뒤알드(Jean-Baptiste du Halde)의 1736년 「중국백과전서(Description géographique,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에 동시에 수록되었다. 결국 동일한 지도제작자가 다르게 그린 조청경계가 하나의 지도집에 수록된 것이다. 이는 당빌이 결국 조청경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빌이 정확하게 경계를 알지 못하고 그렸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그의 1729년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이다(그림 5). 이 지도에서 그는 백두산 서쪽의 조청경계를 압록강으로 표시했지만, 동쪽에는 두만강을 아예 그리지 않고 대신 장백산지로 잇는 선으로 국경선을 표시했다. 따라서 당빌선이나 레지선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국경 개념을 설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당빌의 조청경계선이 이렇게 불명확하게 그려졌을까? 「황여전람도」에서 조청경계를 추출할 수 없었던 당빌은 중국에 파견된 프랑스 예수회들의 서신에 의존하여 조청경계를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봉금지대가 실제 어느 국가의 영토에 속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기독교에 대해 저술한 Huc (1858)은 유럽인 선교사들이 봉금지대를 방문했을 때, 유조변이 조선이 북쪽 경계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유조변 남쪽에 갈 수 없다고 한 내용을 기술했다. 이로 미루어 봉금지대 남쪽으로 중국인들이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당빌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빌이 봉금지대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임의로 그렸을 확률이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국경선에 대한 18세기 유럽인의 태도이다. 우리는 흔히 유럽지도에서 유럽국가들간의 국경선은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자연경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이 아니다. 당빌이 지도제작자로 활약하던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협정에서도 지도를 첨부하지 않았다. 단지 지방의 명칭만 조약에서 열거했을 따름이다. 당빌이 이 지도들을 그렸을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는 1713년과 1714년 사이에 체결된 유티레흐트조약(Treaty of Utrecht)에서도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명칭만 열거한 목록을 작성하여 조약문에 첨부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지리적 영역 자체도 명확하지 않았다. 실제로 지도를 그려서 조약의 결과물로 만든 것은 1814년에 체결된 파리조약이후이다(Branch, 2001). 따라서 당빌이 지도를 제작했던 당시 유럽에서는 정치권력이 도시, 성, 마을에 선별적으로 작동하던 시기로 경계선을 대략적으로 그리던 시기였다. 따라서 유럽지도의 국경선도 불명확하게 그려졌는데, 유럽인이 제작된 아시아 지도의 경계가 정확하게 그려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조선과 청나라의 국가관계에 대해서 19세기말까지도 서구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특별히 책봉과 조공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관계에 대해 북경 주재 미국대표를 지냈고 이후 미국의 중국학을 정립한 록힐(William Woodville Rockhill)은 논문을 작성하기

도 하였다(Rockhill, 1889). 이러한 상황에서 당빌이 조선과 청나라의 외교관계를 이해하고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도에 그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서양고지도에서 한반도의 형상은 1816년 이후 변한다.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한 지도가 유럽에 전달되었고, 이후 이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를 표기한 지도가 향후 50년간 사용되었다(정인철, 2015). 이 책을 번역한 독일의 동방학자 클라프로트(Julius Heinrich Klapproth)의 「삼국총도(Carte des Trois Royaumes)」에서는 조선의 영토가 황색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조청경계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형태의 한반도 지도를 채택한 지도들은 자연스럽게 조청경계를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그렸다.

또한 김대건 신부가 1846년 그려서 상해의 프랑스 공사관에 전달한 지도 역시 국경 표시에 영향을 미쳤다. 말트-브링(Victor-Adolphe Malte-Brun)은 이 지도를 축소해서 1855년 파리에서 발행된 「지리학회지(Bulletin de la Société de géographie)」에 게재했고, 이후 유럽의 조선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김대건 신부의 지도는 「해좌전도」를 모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의 경계를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표시했다.

이후 레지선이나 당빌선과 같이 만주의 넓은 지역을 조선으로 표시한 지도들은 점차 사라졌다. 대신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경계로 표시하거나, 압록강이나 두만강 북쪽의 일부 지역만 조선의 영토로 표시한 지도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동간도(북간도)만 조선의 지도로 표시한 지도들도 출간되었다. 로스(John Ross)의 1895년 「로스 목사가 수정한 만주 지도(Map of Manchuria)」와 동일한 해에 출간된 스탠퍼드(Edward Stanford)의 「도서관용 아시아 지도(Stanford's Library Map of Asia)」는 동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다. 지도의 저자들이 조청경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 않아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백두산 동쪽과 두만강 대안인 동간도(북간도) 지역에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곳을 조선의 영토로 인식해서 그렸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의 1903년(고종 40년) 8월 11일자 기사에는 당시 내부대신 서리인 김규홍이 고종에게 아뢰기를, 북간도가 대한제국과 청나라의 경계 지대로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조선 백성들이 이주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수만 가구에 십여만 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실제 조사관 이범윤을 파견하여 호구를 조사한 결과 1만 3,000여 가구가 됨을 확인했다. 그리고 청나라 관원들의 학대가 심하니, 이범윤을 관리로 파견

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물을 보호해 달라고 고종에게 요청하니, 고종이 윤허했다. 따라서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기에 당시의 서구인들이 이 지역의 정보를 입수한 다음, 조선의 영토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III. 「황조일통여지도」로 살펴본 조청경계

「황조일통여지전도」는 1832년에 청나라의 동우성(董祐誠)과 이조락(李兆洛)이 제작한 지도로 강희제의 「황여전람도」와 건륭제의 「십삼배도」를 참조하되 건륭제 시기의 행정구역 개편과 물길의 변화를 반영한 지도이다(정인철, 2015). 이 지도 속의 조선지도에는 조청경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감계의 쟁점이 되는 두만강과 토문강이 동일한 강인지의 여부와 조청경계선의 획정을 위한 두만강 상류 수원의 결정에 사용되었다(그림 6).

강희제는 1711년 목극등에게 압록강과 토문강 사이의 장



그림 6. 「황조일통여지전도」의 조선  
출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백산 변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목극등은 천지에서 동남쪽 10여 리 지점인 압록강 동쪽 수원을 정하고 다시 동쪽으로 백여 리 더 가서 동류하는 한 갈래의 물줄기를 발견하고 이를 두만강 수원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는 이곳을 분계점으로 정해 1712년 백두산정계비로 불리는 비석을 세우고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이라는 의미의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비석에서 두만강의 원류라고 생각되던 지점까지는 목책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목극등은 백두산정계비 터 동쪽에서 흐르는 하천이 두만강의 원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물은 송화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이후 이 문제를 인식한 북평사 홍치중은 조정에 보고한 다음, 일단 공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시 공사를 진행하던 관리들은 홍치중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두만강의 원류까지 목책을 연결했다. 정계를 잘못된 책임을 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강석화, 2000; 이화자, 2011).<sup>4)</sup> 목책이 연결된 곳의 위치는 학자들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sup>5)</sup>

정계비 설치 이후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을 둘러싼 특별한 분쟁은 없었지만, 무인봉금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1881년 청나라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 간도 개척에 착수하면서 간도지역에 땅을 개간한 조선인을 청에 귀화시키려 했다. 청나라는 조선인들이 길림 변경지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이들을 송환해 가든지, 아니면 조선인들이 치발을 하고 중국에 귀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선에서는 조선인들이 머리를 깎고 중국의 호적에 편입되는 일만은 없게 해달라고 청나라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은 청나라의 땅이 아니며, 조선의 영토에 속하는데 그 증거가 정계비라고 주장했다. 1883년 5월 함경도의 종성<sup>6)</sup> 백성들은 중국 관리에게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은 분계강의 다른 이름이고, 이들이 거주하는 땅은 분계강의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했다. 또 분계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경계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김형중, 2014:217).

청나라에서는 조선의 「해좌전도」에 토문강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토문강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는 「해좌전도」에 토문강과 토문 이남의 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조선인들이 원래 강역에 대한 고찰이 소홀하기도 하지만, 이 땅이 황무지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두만강 이북에 토문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sup>7)</sup>

1883년 9월 길림의 둔화현에서는 함경도의 회령부에 공문

을 보내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을 모두 귀국시키라고 요청하면서, 정계비에 표시된 토문강의 발원지를 조사하라고 제안했다. 이것이 감계가 시작된 계기이다.

1885년 1월 20일 청나라의 훈춘부 변무승판처에서 함경도 안무사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황조일통여지전도」에는 이 지역에 토문강만 있고 다른 강이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에서 말하는 토문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sup>8)</sup> 1886년 4월 28일 총리아문은 광서제에게 조청정계에 대해 고증할 내용을 보고했다. 여기에서 「흙정회전」이나 「흙정삼통」과 같은 문서들은 이미 오래전인 건륭제 시기에 만들어져서, 근거자료가 되기 어렵지만, 「황조일통여지전도」에는 산천의 맥락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으므로 확실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지도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1886년 1월 10일 조선감계사 이증하는 고종에게 「별단초」를 보내어 만주 어사전인 「오체청문감(五體淸文鑑)」과 중국지도를 참조할 때,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김형중, 2014).

두만강과 토문강이 동일한 강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상, 이제 두만강의 발원지를 찾아 국경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감계사의 임무였다. 이전에 두만강과 토문강이 동일한 강이라는 청나라의 주장에 근거 자료로 사용된 「황조일통여지전도」가 이번에는 조선의 주장에 활용된다. 당시 청나라에서는 이 지도를 열람하려는 이증하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증하는 사람을 보내어 북경에서 이 지도를 구입해 왔다.<sup>9)</sup> 청나라에서는 두만강의 발원지에서 흐르는 원류로 홍단수와 서두수를 생각하고 이들 하천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홍단수는 그림 7의 지도에서는 홍단하(洪丹河), 그리고 서두수는 어운하(漁潤河)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증하는 홍토수(홍토산수)가 두만강의 최상류원이라고 주장했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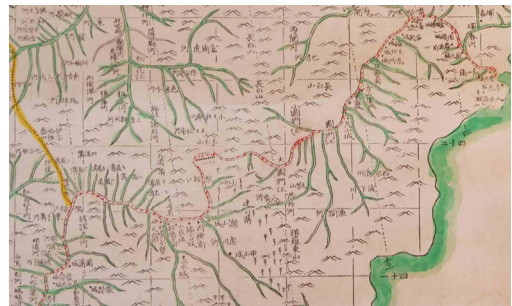


그림 7. 「황조일통여지전도」의 조선의 북방영토 주변 지역 출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1887년 4월 30일(음력 4월 7일) 이증하는 길림에서 파견한 관원 진영에게 보낸 서신에서 도문과 두만이 하나의 강이고 도문강이 천연의 경계라는 것은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인정하지만, 홍단수는 소백산 이남에 있어서 조선의 영토 안에 위치하므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모든 문헌에 장백산이 도문강의 발원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갑자기 소백산 이남의 발원지를 조사하자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증하는 1887년 5월 7일 청국 관원들에게 「황조일통여지전도」를 근거로 중국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반박한다.

「흙정통전」에 이르기를, “길림과 조선은 도문강으로 경계를 삼는다.”고 했다. 이제 「황조일통여지전도」를 살펴보면 대, 장백산 앞 압록강과 도문강 사이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無水處)에 ‘점으로 이어진 표시(點畫標識)’가 있으니 그것이 경계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비석 동쪽에서 물이 솟아 흐르는 하천은 오직 홍토산수 하나이기 때문에 홍토산수가 도문강의 발원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나라에서 주장하는 홍단수의 수원은 압록강에서는 70리나 떨어져 있으므로 결코 분수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지도에 의거하여 백두산 동쪽의 수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도에서 장백산 동쪽에 대도문강(大圖們江)이 있는데, 지금은 홍토수(紅土水)로 부른다. 그리고 그 동북쪽에 있는 한 줄기 물은 소도문강(小圖們江)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현재 명칭은 홍기하(紅旗河)이다. 장백산의 남쪽에는 소백산이 그려져 있고, 그 남쪽에 세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 삼지(三池)라 표기했다. 그 아래 한 줄기 물은 홍단하(洪丹河)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삼포홍단수(三泡洪丹水)라고 한다. 또 그 남쪽에 한 줄기 물이 제일 긴데 어운하(魚潤河)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재 명칭은 서두수(西豆水)이다. 조선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도 어운하라고 표기되어 있다. 소백산·삼지·홍단수의 북쪽에 강이 있는데 대도문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홍토산수이다. 이 강의 북쪽에는 소도문강 한 줄기만 있고, 그밖에는 오로지 해란하 뿐으로 다른 강은 없다. 그러나 홍토수가 대도문강이라는 것이 매우 정확하다(이왕 무 등, 2008; 김형중, 2014).

위에서 이증하가 말한 내용은 그림 7의 지도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증하는 이 지도를 근거로 감계회담에 임하여 조선의 강역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sup>11)</sup> 1887년 5월 31일 이증하는 이 지도를 가지고 강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청국 관원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황조일통여지전도」의 길림과 조선의 경계부분을 모사해서 청국 감계사에게 제공하

여 조사에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지도가 경위도 좌표에 근거한 정확한 지도이므로 이를 근거로 두만강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면 대도문강과 소도문강에 해당하는 물길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87년 6월 7일 청국 관원들이 정계비가 옮겨졌을 가능성과 도문강의 발원에 대해 다시 의문을 표하자, 이증하는 도문강의 정원이 홍토수인 것은 「황조일통여지전도」가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국 관원들은 이번에는 이 지도가 청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간행한 지도가 아니므로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증하는 청국에서 이전에는 이 지도를 근거로 도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라고 주장했으면서, 이번에는 이 지도를 증거 자료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가 있는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증하의 홍토수 주장에 흥분한 청국관리들은 이증하에게 화를 내었다. 이증하 역시 화를 내며 소리치기를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나라의 강토는 축소할 수 없다.” 했다. 그러자 청국관원들은 옛날 경계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냐고 다시 질문했고, 이증하는 조선의 지도는 청국에서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를 근거로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사흘 후인 1887년 6월 10일 이증하는 다시 홍토산수가 「황조일통여지전도」에 실린 대도문강이라고 주장했다.

1887년 12월 5일 총리아문은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도문강의 수원을 감정하고 정계비를 세우고자 한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들은 이전에 「황조일통여지전도」에 표기된 서두수를 도문강의 발원지라 생각하고 조사했는데, 서두수는 홍단수의 남쪽에 있고, 또 조선 길주의 학령에서 발원하므로 그것이 대도문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홍단수의 경우 압록강의 발원지와 48.5리 떨어져 있고, 또 삼지와 접하므로 두만강의 발원지라 생각했지만, 이 경우 장파(長坡)의 일부 지역이 중국 경내에 포함되므로, 도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수문학적으로는 도문강의 발원지가 홍단수이지만, 이는 기존의 강계와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대신 이번에는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물줄기인 석을수를 찾아서 이 강이 도문강의 발원지라고 청국에서 주장했다. 석을수의 위치는 그림 8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자 조선에서는 석을수는 장백산이 아닌 소백산에서 발원하므로 두문강의 정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은 장백산과 소백산은 상호 인접하고 장백산이 하나의 산체가 아닌 천 리나 뻗어 있는 산맥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소백산과 장백산은 동일한 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토수와 석을수가 합류하여 대도문강으로 들어가므로 조선의

소백산은 두만강의 발원지이면서도 압록강과는 42리 정도만 떨어져 있으므로 분수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서쪽은 압록이고, 동쪽은 토문이다.”는 비문의 내용과 일치하기에 이곳을 경계로 해서 새로운 비석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1888년 5월 30일 고종은 북양대신에게 보낸 공문에서 석을수를 경계로 삼자는 청의 주장에 반대했다. 고종은 이중하의 주장을 인용하여 장백산이 아닌 소백산에서 발원하는 석을수로 삼으려는 중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감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석을수의 발원지는 장백산이 아니라 소백산이며, 도문강의 제 1의 발원지가 아닌 제2의 발원지일 따름이며, 기존의 지도와 서적에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김형중, 2014:919).

이후에도 청나라는 석을수 경계를 계속 주장했다. 1888년 5월 변무승판처에서 길림장국에게 올린 보고에는 석을수가 경계가 되어야 백두산을 청나라의 발상지로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백두산을 청나라가 차지하기 위한 의도가 당시의 감계의 한 목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회담은 결렬되었고,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조선과 청

나라는 감계회담을 계속할 수 없었다.

당시 청나라가 주장한 경계인 석을수는 간도협약 당시에 조정경계로 확정되었다. 두만강 수문을 그린 그림 8의 지도에서는 석을수가 석을천으로 표시되어 있다. 단 이 지도에서는 홍토수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사실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홍토수를 대도문강이라고 주장한 이중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있었다. 1888년 9월 25일 이홍장이 원세계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홍토수는 비가 올 때나 흐르는 작은 물줄기였다. 실제로 홍토수는 홍토산 또는 적봉이라고도 하는 산지에서 초지 수풀 속으로 흘러내리는 작은 냇물로 하천의 폭은 20c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홍토수를 대도문강으로 비정한 이중하의 주장에 청국 관리들이 흥분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작은 물웅덩이와 개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작된 두만강은 주변의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합치며 548km를 흘러 동해로 유입된다. 그리고 청나라가 발원으로 주장한 석을수 역시 북한 경내에서 흘러내리는 냇물로 하천의 폭은 대략 1.5m에 지나지 않는다(김한산, 2011). 북한에서 간행한 「백두산총서」에 의하면 두만강은 발원은 적봉 부근의 중국 홍토수 합류점부터 시작된다(도성재, 2010). 따라서 이중하의 주장대로 두만강의 발원은 홍토수이다.

홍토수는 1977년에 북한에서 제작된 1:50,000 축척의 지형도의 삼장면 도엽(NK52-5-42)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9). 이 지도는 지린성과 양강도를 포함하는 데, 지명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중국 경내에 있는 고도 1320.4m의 산이 홍토산이다. 그리고 이 산의 남쪽에 표시된 국경선을 지나는 하천이 홍토수이다. 홍토수는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중 변경 조약에 따라 현재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이 되었다. 홍토수 주위에는 북중 변경선 21호 비석이 세워져 있다(서길수, 2009).



그림 8. 백두산 동부 지역 수문도

출처: 도성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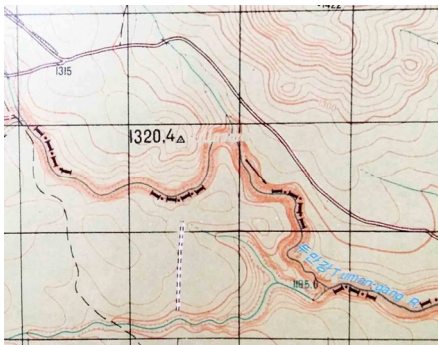


그림 9. 북한 1:5만 지형도의 홍토산과 홍토수

출처: 경인문화사(1997)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양고지도의 북방영토 표현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이중하가 조정 경계의 근거로 제시한 「황조일통여지전도」를 통해 감계회담 당시의 논의를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서양고지도를 근거로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간도영유권을 주장해온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선과

청나라의 국가관계에 대한 유럽인들의 정보 부재, 유럽의 국가 간 국제조약 체결시의 지도제작 관행, 그리고 당벌의 여러 지도에 다르게 나타난 조청경계선의 형태를 고려할 때,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조청경계는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그려졌을 확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에서는 동간도 지역이 조선령으로 표기되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간도지역에 십여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영토 영유권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당시 조선과 청나라, 그리고 일본이 개입된 매우 복잡한 간도영유권 문제를 외국 지도 몇 장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황조일통여지전도」가 을유감계와 정해감계시에 어떤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을유감계에서는 이 지도가 토문강과 두만강이 하나의 강이라는 청나라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었지만, 정해감계에서는 이 지도의 두만강과 압록강 사이의 점선이 조청경계라는 이중하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중하는 이 지도의 대도문강이 홍토수라고 주장했고, 청나라는 이에 반발해서 석을수라고 주장했다. 이중하의 홍토수 주장이 이후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선 획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가 홍토수로 설정되어 있다.

「황조일통여지전도」는 조선의 강역을 지키기 위한 이중하의 주장을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이 지도를 근거자료로 하여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당시의 역사지도를 정확하게 제작하기 위한 역사지리환경을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김종혁, 2013).

한 가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도가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때는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다. 이중하 역시 1887년 7월 5일 지도나 문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자 한다고 탄식했다. 왜냐면 동일한 문헌과 지도를 보며 함께 답사한 정해감계 당시의 조선과 청나라의 대표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지도가 영토문제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느냐의 여부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지도는 영유권 주장에서 국제법상 증거능력이 크지 않다(김명기, 2009).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도만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간도문제를 해결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註

- 1) 조병현(2011)은 북방영토의 면적을 고지도를 활용해서 계산했지만, 지도 자체의 신뢰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라고 볼 수는 없다.
- 2) 동간도는 북간도라고도 하며 혼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가리키며, 보통 간도라고 하면 이 동간도를 말한다(이왕무 등, 2008).
- 3) 예를 들어 간도되찾기 운동본부에서 2007년에 발행한 간도신문 7, 8, 9호와 2008년에 발행한 간도신문 13호에서 모두 서양고지도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 4) 이후 공사를 감행한 이들은 문초를 받았다(숙종실록, 52권 38년 12월 7일).
- 5) 강석화(2000)는 공사담당자들이 두만강 수원이라 생각하여 정계비에 잇닿도록 설택한 수원 역시 송화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이화자(2011)는 이 설책이 정계비에서 홍토산수(紅土山水)까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 6) 당시 함경도의 행정구역 체계에 대해서는 정병욱(2014)을 참조할 수 있다.
- 7) 이 내용은 1883년 10월경 서북경략사 어윤중이 고종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8) 실제 문서에서는 토문강만 있고 다른 강이 없으므로 조선에서 말하는 두만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문서에서 말한 토문강은 도문강의 오기가 확실하다. 「황조일통여지전도」에서는 두만강이나 토문강이 존재하지 않고 도문강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9) 이 내용은 1887년 12월 5일 총리아문이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낸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 10) 홍토수는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 11) 당시 청나라에서도 지도가 감계회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1887년 5월 10일 혼춘부 도통아문 변무교섭처에서 감계위원들에게 감계를 지시하는 문서에서는 변방의 사정이나 지도 등에 익숙한 인원을 새로 뽑기 어려우므로 이전에 파견했던 관원들을 다시 임명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김형중, 2014:715).

## 참고문헌

- 강석화, 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서울: 경세원.
- 경인문화사, 1997, 「최근 북한오만분지일지형도」, 서울: 경인문화사.
- 국토지리정보원, 2007, 「外國古地圖에 表現된 우리나라 地圖 變遷과정 研究」.
- 김기혁, 2006, 「조선후기 고지도에 나타난 조창노 경계인식의 변화」, 부산: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 김득황, 1987, 「白頭山과 北方疆界 : 압록강, 두만강은 우리의 국경이 아니다」, 서울: 사지연.
- 김명기, 2009, 「국제법상 지도의 영토권원 인정 증거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7, 151-191.
- 김종혁, 2013, 「역사지도 제작을 위한 역사지리환경의 복원」, 한국지도학회지, 13(2), 77-94.
- 김한산, 2011, 「백두산 화산」,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형중 역, 2014,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남의현, 2012, “고지도를 통해서 본 15~17세기의 변경지대: 압록강, 두만강 변을 중심으로,” 만주연구, 14, 37-73.
- 도성재, 2010, 「백두산의 수자원」, 김정배·이서행 편, 「백두산: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남: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판부, 212-230.
- 문상명·양보경, 2013, “한국 고지도 속 백두산 북동류 하천에 나타나는 북방영역에 관한 인식과 사회적 담론,” 문화역사지리, 25(2), 88-105.
- 박선영, 2004,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지도에 나타난 한중 국경선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32, 199-234.
- 박선영, 2007, “서간도, 동간도가 명기된 참모본부 지도에 대하여: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새롭게 발견한 간도 자료,” 동양사학연구, 101, 299-317.
- 서길수, 2009, 「백두산 국경연구」, 서울: 여유당.
- 양보경, 1996, “조선시대 북방지역에 대한 인식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 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35, 300-322.
- 엄찬호,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한·중·일 경계인식의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9, 3-36.
- 엄찬호, 2012, “조·중간의 경계분쟁과 고지도,” 한일관계사연구, 42, 305-342.
- 이돈수, 2004, “18세기 서양고지도 속에 나타난 북방영토,” 간도학보, 1, 245-279.
- 이범관·홍영희·조병현·김종남·강석숙, 2010, “朝·淸 國境定界交涉과 北方領土意識에 關한 研究(下),” 한국지적학회지, 26(2), 225-241.
- 이상태, 2009,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한국지도학회지, 9(2), 33-58.
- 이왕무·정육재·양승률·서동일 역, 2008, 「감계사등록」,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이재은·양보경, 2011,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한중국경 및 만주,” 문화역사지리, 23(3), 21-35.
- 이화자, 2011, 「한중국경사 연구」, 서울: 혜안.
- 장영숙, 2013, “일제시기 역사지리서에 반영된 간도(間島) 인식,” 동아시아문화연구, 53, 295-328.
- 정병욱, 2014, “일제강점기 함경도의 행정구역 변화와 인구 변동,” 한국지도학회지, 14(3), 15-28.
- 정인철, 2015, 「한반도 서양고지도로 만나다」, 서울: 푸른길.
- 조병현, 2010, “北方領土問題로 본 間島領域,” 백산학보, 86, 273-315.
- 조병현, 2011, “간도영유권 주장의 지적학적 범위 분석,” 백산학보, 90, 185-211.
- Branch, J.N., 2001, Mapping the sovereign stat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Huc, E.R., 1858, *Le christianisme en Chine, en Tartarie et au Thibet*, Paris: Gaume Frères.
- Rockhill, W.W., 1889, Korea in its relations with Chin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3, 1-33.
- 교산: 정인철, 4628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icjung@pusan.ac.kr)

Correspondence: In-chul Ju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63 Busandaihak-ro, Geumjeong-gu, Busan 46288, Republic of Korea (Email: icjung@pusan.ac.kr)

**투 고 일: 2016년 6월 28일**  
**심사완료일: 2016년 7월 20일**  
**투고확정일: 2016년 7월 25일**

